

## 고 이창구 박사님을 추도하면서

박근식(대한수의사회 국가수의자문위원)

**이**창구 박사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1926년 7월 23일에 평창 이씨로 출생하시어 지난 2007년 5월 19일 23시 35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까지 격동의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한국 수의 축산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1953년 국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 후 동대학원을 거쳐 미국 마사츄세츠주립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 이학박사의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 중앙병리연구소에서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1956년 농림부 중앙가축위생연구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직제개편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시험국 기획조정과에 근무, 연구조정관을 역임한 다음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직을 끝으로 1983년까지 27년간 연구 공직에 근속하면서 당시 불모지였던 한국의 축산 수의 분야의 발전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특히 수의과학 연구분야의 기초 확립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약한 업적은 이 나라 축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초석이 되었음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국제 동물질병의 UN이라고 불리어지는 국제수역국(OIE) 총회의 한국 대표로 1968년 제7차 FAO-OIE 총회를 비롯해서 매년 한국대표로서 활약하여 한국의 수의과학 분야의 외교력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술교육훈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젊은 수의과학자들을 해외 선진국에 파견 이 나라 수의축산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 셧습니다.

지금도 당시 해외훈련을 마치고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진출하여 한국 수의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분을 소개하면 서울대에는 박용호, 김선중(금년퇴직), 박봉균, 윤희정, 김재홍, 건국대에는 류영수, 송찬선, 이중복, 경북대는 김봉환, 김기석, 경상대 서명득, 김순복, 전북대 조종후, 충남대 전무형, 충북대 모인필 교수 등 전국 각처에서 그리고 수의과학 검역원 중진급에 속하는 연구관 급 이상의 대부분이 그 당시 해외 훈련을 받아 지금도 열심히 연구와 제자 양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역사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국제기구인 UNDP(국제연합개발사업)을 유치하여 한국 축산의 산업화를 이루는 가축방역사업의 전환점이 되었던 한국의 「가축위생 강화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88서울올림픽 개최의 위기의 갈림길에서도 퇴직 후이면서도 당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승마경기의 개최를 가능케 한 일에도 큰 몫을 담당하셨던 일도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업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의 축산의 현대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축·가금산업을 지탱하는 가축방역사업이 선진화되었음은 최근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소의 해면성뇌증(BSE)의 대처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 이 창구 박사님의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에 기인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 이 박사님은 퇴직 후에 1995년에 하나님을 영접하셨으며 지금은 비록 하늘나라에 가 안식하고 계시지만 이 박사님의 불멸의 위업은 우리들의 기억에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금번 장례식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님을 비롯해서 주 이석과장 등 많은 후학들의 조문에 감사드립니다. 

(미망인 정정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롯데 A103-703호 전화 : 031)896-2707 H·P : 010-7152-2117)

